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환경부,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점검(2025.01.14) - 환경부가 1월 14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이병화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 진행 중.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충전 불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 -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 창구 인력 증원 계획
지자체	□ 삼척시 수소도시 조성 정부 공모 도전(2025.01.09) -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준비 돌입. 시는 오는 2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10월까지 공모 신청 완료 예정 - 삼척시는 이미 동해시와 함께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수소 관련 맞춤형 투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및 기술개발 우선 지원 등의 혜택 수혜. 또한 액화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삼척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등 다양한 수소 관련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핵심축으로 성장 상태 - 현재 국내에는 시범도시 3곳, 1기 수소도시 6곳, 2기 수소도시 3곳 등 총 12곳의 수소 도시 존재.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설정. 삼척시의 이러한 도전은 수소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 □ 전북자치도, 수소경제 이행촉진 등 첨단산업 육성 전초기지로 도약(2025.01.09) -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발판으로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탄소, 수소 등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예정. 특히 수소산업 분야에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육성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 기반 구축의 성공적 진행 상태 - 현재 수소용품 및 연료전지 인프라 4개소, 수소 생산기지 2개소, 수소도시 3곳 조성 등의 성과 달성.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협업 강화의 진전적 발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센터 구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국내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 준비 상태
	□ 완주군수 "용진·봉동 스포츠·수소 메카로"(2025.01.09) - 완주군수가 용진읍과 봉동읍을 스포츠, 수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 특히 봉동읍의 경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신속 조성을 위한 총력 계획 발표와 함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침 -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등 2027년까지 1,400여억 원 규모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예정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대비를 위해 3,000여 세대의 미니복합타운과 7,000여 세대의 삼봉 2지구 등 1만여 세대 주거단지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의 구체화 단계
	□ 충전중 수소버스 폭발 사고 불안… 내압용기 검사소, 도내 4곳 불과(2025.01.09) - 최근 충주 수소버스 폭발사고 발생 이후 경기도내 수소버스 기사들의 안전 우려 급증. 도내 수소버스는 총 10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44대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상태. 고양시는 마을버스에 수소버스 5대를 투입하고, 이천시도 도내 최초로 광역수소버스 5대 도입의 현황 - 수소버스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가 도내 수원·성남·시흥·양주시 등 4곳에 불과한 실정. 사업용 수소버스는 3년 주기로 내압용기 정기검사가 필수임에도 검사소 부족으로 인한 안전 확보의 어려움 발생 상태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개설을 목표로 안산 내압용기 검사소를 추진 중이며, 수소차 수요에 맞춰 검사소를 확대할 계획 발표.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성 증가
	□ 밀양시, 미래성장 수소특화단지 조성 박차(2025.01.09) - 안병구 밀양시장의 2025년 시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며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 제시. 밀양시는 2025년 본예산을 1조 842억원으로 편성하여 3년 연속 1조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의지 표명 - 수소충전소 개소,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 진행. 이를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AI시대로의 전환을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노력 강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언론인들의 창의적 제안을 통한 협력적 발전 모델 구축의 방향성 제시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하구 건립 백지화(2025.01.10) -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추진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무산 확정. 지역 주민 반대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 당초 발전용량 15MW 규모의 발전소를 20년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착공 한 달 만에 공사 중단의 결과 - 지역 주민들의 주변 환경오염 우려와 '낙후된 동네' 이미지 고착화에 대한 반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감천1동 주민을 비롯해 인접한 감천2동, 구평동 주민까지 환경 문제를 우려하며 사업 반대의 입장 표명 - 정부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 시작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도 결정적 영향.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가스 조달비용이 높아 kWh당 단가가 높은 것이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상황
	□ 울산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영업 나흘만에 중단(2025.01.10) - 지난 2일 영업을 개시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나흘 만에 정비를 위해 운영 중단. 단순 부품 문제로 발생한 일시적 상황이나, 별도의 공지가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의 헛걸음과 불만 발생의 상황. 운영 중단 기간은 1월 6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 - 충전소는 수소 배관을 통해 3단계의 가압 과정을 거치는 특수 시스템 보유. 시범운영 당시에도 오링 문제로 미세 누유가 발생했으나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식 운영 시작 후 동일 문제가 재발생하여 정비 돌입의 필요성 대두 - 시간당 총 80kg 충전 규모로, 하루 승용차 336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의 시설로, 총 60억원이 투입된 사업. 울산시는 부품 교체만으로도 예정일보다 빠른 운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 친환경 수소버스 모범 사례 전주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2025.01.12) - 전주시 버스정책과가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등 '2050 탄소배출 제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정부로부터 '친환경 교통도시'라는 호칭 획득하며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 입증 - 2020년부터 5년간 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운영의 성과가 인정받은 상태. 현재 394대의 시내버스 중 178대의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하여 국내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시내버스 운행 네트워크 구축 - 송천동 승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 운영 중. 이달 중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충전소 추가 운영 예정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 비율 100% 달성 목표 설정
	□ 울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성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2025.01.13) - 울산도시공사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공기업 중 최초 수상으로, 울산시가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에너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 표명 - 2020년부터 울산형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수소 배관 198km를 연결해 '탄소 중립형 수소아파트' 구현. 수소버스 및 수소트램 충전소 구축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 마련의 성과 달성 - 수소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 내에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안전성 강화 및 시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불안감 해소. 태화강역에는 수소홍보관을 설치해 시민과 청소년 대상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 □ 내년 제주시 그린수소 하루 4톤 생산...수소차 민간보급 이뤄지나(2025.01.13) -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도내 수소 공급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수소 생태계 확대에 박차. 현재 행원리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하루 1톤의 그린수소 생산 중인 상태 - 북촌리 10.9MW 시설이 구축되면 하루 3톤의 그린수소 추가 생산 가능. 내년부터는 도내에서 하루 4톤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져 수소 승용차 '넥쏘' 기준 800여 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 - 자가용 수소차에 대한 제주도의 민간 보급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가용 수소차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보급 확대 계획 수립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진주시미국방문단, 우주항공기업과협력모색(2025.01.09) - 진주시는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하여 글로벌 우주항공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 이들은 샌디에이고 컨수노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도 참가.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홍보와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 - 시 관계자는 이번 CES 전시회가 지역 기업이 기술력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강조함. 또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진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이번 방문단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전우주산업규제혁신첫발(2025.01.09) - 대전시는 7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우주산업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에는 우주산업 기업,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규제 완화와 특구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눔 - 주요 논의는 발사체와 위성 기술 상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장벽 완화 및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짐.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이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 - 대전은 지난해 9월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특구 계획 보완 작업을 진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고해상도 위성영상 AI 실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
	□ 대전시, 美우주항공·국방산업전략적파트너십구축(2025.01.11) - 대전시는 1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하여 델타항공과 록히드마틴과의 협력 방안 논의. 델타항공과는 항공기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가능성 모색 - 록히드마틴과의 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 기술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며, 대전의 글로벌 항공우주 중심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 - 대전시는 지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제주도, 2025년'도민체감형우주산업원년'...'실질적성과낼것'(2025.01.13) - 제주도는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 2024년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반으로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 - 제주한화우주센터는 공정률 24%로 10월 준공 예정이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연구를 통해 국내외 우주산업 협력과 제주만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 - 특성화고 개편과 지역 혁신 대학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우주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청소년 대상 우주과학 관심 증대를 위한 활동도 강화
	□ 우주항공청입지연기, 특별법오리무중...사천시민불안감증폭(2025.01.13) - 사천시에서 계획 중인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선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입지 선정은 오는 2월로 연기되었고,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 - 우주항공복합도시에는 행정, 산업, 주거, 문화, 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자족형 복합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시로 계획되었으며, 프랑스 툴루즈를 롤모델로 삼고 있음. 그러나 입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시민들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변수가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며, 경남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수소차 연료 속 불순물 실시간 검출...폭발 위험 '미리 제거'(2025.01.14)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수소 충전기에 설치해 수소연료 속 불순물의 성분과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비 개발. 이는 ISO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불순물 14가지 중 수증기, 산소, 아르곤 등 8가지 성분을 정확히 측정 가능한 혁신적 기술 - 수소연료는 내연 연료에 비해 생산, 운반, 저장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큰 상황. 현재는 분기마다 검사 기관이 충전소를 방문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시점 외에는 수소연료에 이상이 생겨도 감지가 불가능한 한계점 존재 - 연구팀이 개발한 장비는 차량에 주입할 수소연료 속 불순물의 성분과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기준치 이상 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기능 보유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우주청 새해 첫 행보, 출연연과 '달탐사' 논의(2025.01.09) - 우주항공청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해 달 탐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 연구진과 달에서 활용 가능한 원자력 전지와 헬륨-3 발전 가능성을 논의 - 지질자원연구원은 달 자원 활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지 자원 활용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함. 각 연구기관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 성과와 현황을 공유함 - 우주항공청은 달 탐사와 우주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해 출연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달 탐사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함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국제인증 획득(2025.01.09) - 코오롱스페이스웍스가 자체 개발한 54L 수소 연료탱크의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R134 인증 획득. 이 인증은 고압 용기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으로, 충돌 시 탱크의 폭발 방지 등 엄격한 안전성 평가 통과가 필수 조건 - 특히 이번 성과는 제조 과정 전 분야의 밸류체인 내재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수소탱크 내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라이너'를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ENP가 개발한 소재로 대체하여, 기존 일본 제품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기술력 확보 상태 - 안상현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반적인 모빌리티 수소 저장 분야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발표.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 R&D에 11.5조...수소·자율주행·SDV 등 미래 신사업 집중(2025.01.09) -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총 24조30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11조5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 계획 발표. 이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규모로서의 의미. 투자는 중장기 투자 방향성에 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 예정 - R&D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수소 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에 집중. 특히 하이브리드 차종을 14개로 늘리고 개선된 하이브리드차 시스템 'TMED-II' 도입 계획. SDV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기·전자 아키텍처 적용 SDV 페이스 카 개발 프로젝트 완료 목표 - 완성차 분야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해 전체 투자액의 약 67%인 16조3000억원 투자 계획. 모빌리티 디바이스 개발, 로봇틱스 비즈니스 등 신사업 다각화에도 8조원 투입 예정.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연관 산업의 고도화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수소로 UAM 날고 AI로 식물 키운다(2025.01.10) - 삼보모터스가 CES 2025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2인승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공개. 수소와 배터리를 결합한 이중 동력 공급원으로 기존 대비 약 35% 비행시간 증가 효과를 보유한 상태 - 수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배터리의 강력한 에너지 특성과 수소의 긴 주행거리 및 빠른 충전 장점을 결합한 핵심 기술로 평가. 이는 UAM의 경제성을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인정 - 기술력은 관련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UAM 업계 1위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 CEO와 임원단이 협력을 요청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목도 증가 상태 □ 호그린에어, 美 이지솔 엘엘씨와 수소 드론 파워팩 기술협력 MOU 체결(2025.01.13) - 수소 드론 전문기업 호그린에어가 CES 2025에서 미국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지솔 엘엘씨와 수소 드론 파워팩 기술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사는 수소애플리케이션 및 소 기술의 다양한 산업 솔루션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체계 강화 계획 - 호그린에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수소 드론과 수소파워팩,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선보여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 획득. 수소 드론의 장시간 비행시간과 높은 효율성이 물류, 구조 활동,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입증 -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적 협력 확대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예정. 수소 드론과 친환경 기술로 글로벌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노력 강화
대학교	□ 수소 이온 활용 '금속 산화물 수소화 기술 개발...'배터리 사이클 안정성 개선"(2025.01.12) - GIST 연구팀이 수소 이온을 활용해 에너지 저장에 적합한 특성으로 소재를 변형할 수 있는 '금속 산화물 수소화 기술' 개발. 경희대, 미국 조지아공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 성과 달성 - 개발된 수소화-몰리브데넘 산화물 양극 소재는 상용 소재 대비 약 1.4~2배에 해당하는 280 mA/g의 높은 에너지 저장 능력 보유. 20분 이내에 170 mA/g의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 및 사용 가능한 특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1000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약 76% 유지할 만큼 수명이 향상된 성능 확인. 향후 에너지 소재 개발에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성과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한국은 수소경제 선두주자, 초기 스타트업 발굴해 키우겠다"(2025.01.14) - AP벤처스의 페니 프리어 회장과 찰리 클라크 투자 매니저가 수소경제 투자에 대한 비전 공유. 약 7300억원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AP벤처스는 탈탄소화 관련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 제시 - 한국을 수소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기술 발전과 정책 지원, 공공-민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소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평가. 특히 수소 생산과 비용 효율적인 저장 및 유통 솔루션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존재 강조 - AP벤처스의 LP들은 공동 투자를 선호하며,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 후 시리즈B와 C 등 후속 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포트폴리오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 체계 구축. 수소경제의 현실적 시각과 생태계 성숙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투자 전략 제시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SF 같은 드론택시 시대, UAM 활성화 국회가 나선다(2025.01.12) - 국회에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UAM을 통한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방안 논의의 장 마련 -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최원철 교수는 UAM을 활용한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철도 연계 내수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강조.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한 UAM 도입의 시급성 제기 -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은 미국 조비사의 UAM이 인증을 받으면 제주도부터 관광사업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서울-대구 간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킬 계획 수립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우주·항공 선도 허브"...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개 대학과 협력(2025.01.09)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공우주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함. 주요 연구 과제는 방산기술, 우주 발사체, 항공엔진 소재 등에 집중 - 대학별로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설정.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항공 엔진 R&D 인력을 2028년까지 5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이번 협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재-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
	☐ 휴니드, K방산·군통신 선두주자...항공우주 추가 성장동력 기대(2025.01.13) - 휴니드는 군 통신체계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항공우주 유지·보수 (MRO) 사업으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첨단 3D 프린팅 기술로 KF-21 전투기 부품과 미사일 부품을 양산 중 - 글로벌 방산 시장 성장과 함께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수주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민간 통신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 - 휴니드는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기술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첨단 무기체계와의 통합 기술 개발에 주력
	☐ 현재 공정률 24%... 제주한화우주센터 올해 10월 준공(2025.01.13) - 제주한화우주센터는 현재 공정률 24%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정. 완공 후 인공위성 제작, 발사체 조립, 관제 등 전 과정을 제주에서 수행 가능 - 우주산업 육성 정책은 도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여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연구와 특성화고 개편 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집중
대학교	☐ "고용 안정성 개선으로 우주인재 진입 장벽 낮춰야"(2025.01.09) - 한제홍 KAIST 우주연구원장은 우주 R&D와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현재 박사급 연구원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연구 환경이 열악한 점이 문제로 지적 - KAIST 우주연구원은 실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주잔해 처리 기술과 같은 장기적인 기술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우주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첫 실험은 2027년 '우리별 3호'를 목표로 수행될 예정 -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우수 연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이 필요함. 이를 통해 우주 연구의 지속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우주공간에서 신약개발한다(2025.01.09) - 이노스페이스, 스페이스런텍,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는 우주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 협약은 우주의학 연구 및 제약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설정 - 세 기업은 수송, 회수 플랫폼, 장치 연구개발에 협력하며, 우주에서의 제조 및 회수 기술의 상업화를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이 우주의학 분야를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 - 우주의학은 제약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며, 이번 협력은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

- 끝-